

(사)가족기업학회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사)가족기업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가족기업학회 회장 윤병섭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회원과 임원 여러분께서 소망한 한 해의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우리 학회도 학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했고 발전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개최된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이어 11월 30일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의 대주제를 다룬 추계학술발표대회는 늦은 오후 이사회 및 총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소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추계학술발표대회 오후의 4개 session, 즉 ESG 경영과 전략, 기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가족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가족기업 등에서 12편의 논문이 발표돼 6번째 맞은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장 성황을 이뤘습니다. 학술연구와 사례연구를 발표하시고 세션별 좌장, 각 논문의 토론을 맡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 길마다 앓고 지방에서 한걸음에 와 주신 회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더 많은 논문이 발표되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가족기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안을 모은 추계학술발표대회 오전 session은 기업승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장이었습니다.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정부가 할 일을 챙겨보고 기업이 할 일을 찾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논문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는 2023년 제1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한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에 의거 최우수 논문상 1편, 최우수 발표논문상 1편, 우수 발표논문상 1편이 수여됐습니다. 최우수 논문상은 강무성(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과 서영택(대진실업주식회사) 공저, 최우수 발표논문상은 최다인(조선대학교), 우수 발표논문상은 김철훈(유안타증권)입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기업연구」 6월호(제2권 제1호)에 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금번 12월호(제2권 제2호)에도 5편의 논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본 학회지가 학술적으로 제대로 성과를 보상받지 못하는 일반 학회지이나 등재지에 게재하여도 손색이 없는 논문을 흔쾌히 투고하신 저자 여러분께 재삼 고마움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자 여러분, 개정한 편집규정 및 윤리규정에 따라 투고, 심사, 게재여부 결정, 가편집, 인쇄본 검독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학회지가 등재(후보) 학회지로 격상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발간하는 학회지의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록 준비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등록(ISSN 2951-4010), 2023년 상반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DOI센터로부터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계정 승인(할당된 접두사 10.23204), 하반기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학술지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 등록 및 학술지 저작권 등록,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일부개정(저작권정책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등에 회원가입, 논문 등록 등의 절차를 밟아 등재(후보) 학회지 등의 요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올해 들어 임원 및 회원의 대폭 확충에 이어 학회의 활성화와 성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연구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 논문 지원 사업 공개모집을 2024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여건이 주어지는 한 학회의 활성화와 성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현 12개 학회가 참여) 회원가입 및 논문발표 계획, 제26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경주)(현 38개 학회가 참여) 회원가입 및 논문발표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춘계학술발표대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면서 등재(후보)지 등록 준비 TF(task force)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기관회비를 기꺼이 기부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도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학술대회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어느 곳엔가는 오늘도 이 시간에 기술로 점철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땀 흘리는 가족기업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기술대국을 꿈꾸고 만드는 이들의 신명난 손길에서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 가족기업을 우리 학회가 응원합니다.

아무쪼록 가족기업학회 회원과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 가정에 평강, 행복, 건강이 늘 함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사)가족기업학회 회장 윤병섭 올림

I. 2023년도 가족기업학회 임원 현황과 위원회

》 1. 임원 현황

구분	회장	부회장	산학 부회장	상임 이사	이사	감사	계
정원(명)	1	50	50	50	100	2	253
현원(명)	1	31	34	17	65	2	150

》 2. 임원 직책과 소속

직책	성명(소속) (가나다 순)
고문	남영호(건국대)
회장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
부회장 (31명)	권성우(고려대) 권홍순(대덕대) 김계수(세명대) 김기형(한양대) 김지희(Canisius College) 김창완(계명대) 김태성(충북대) 김태한(중원대) 김학수(호서대) 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 박경미(농협대) 박주현(서울벤처대학원대) 송병호(건국대) 심준섭(경운대) 심충진(건국대) 유병준(서울대) 유시용(중앙대) 유재원(숭실대)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 이경우(국제사이버대) 이상휘(경희대) 이철규(건국대) 이현재(국민대) 전홍진(중국 연변대) 정기만(한국교통대) 정용태(계명문화대) 조규호(서원대) 조영석(목포대) 최종인(한밭대) 하태관(호서대) 홍재범(부경대)
산학 부회장 (34명)	강만수(하이퍼리서치) 강무성(반포자이행복한부동산) 고혜진(고원니트) 김권수(경남개발공사) 김병구(이노제이에스) 김병진(성보춘) 김선화(에프비솔루션) 김소희(드림오피스)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용갑(갈등조정연구원) 박은홍(영창실리콘) 박준현(신영관세사사무소) 박찬명(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백준성(세무법인온지) 변우석(코맥스) 신상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수한(우도경영기술연구원) 서영택(대진산업) 서정태(한국ESG지원센터) 송공석(와토스코리아) 오철수(서울경제신문) 원종인(비즈니스포커스) 유경하(서전엔지니어링) 이응훈(한컨설팅그룹) 전병문(씨에프오아카데미) 정태련(흥진정밀) 정한규(능률협회컨설팅) 차재영(한백세무회계사무소) 채연근(징코스테크놀로지) 최봉길(최봉길세무사사무소)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허동현(선진이앤에스) 허호영(오스텍) 황조익(드림이앤씨)
상임 이사 (17명)	곽원준(숭실대) 권준화(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성태(동의대) 노경호(대림대)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상문(강원대) 박재성(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준우(청주대) 박천경(경희대) 송덕근(건국대) 유한수(극동대) 이미순(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종덕(서울바이오시스) 이지연(퀸스스피치) 임승중(중소기업중앙회) 장수덕(한남대) 최영근(건국대)

이사 (65명)	강승완(가천대) 강신우(명성세무컨설팅) 고경일(코칭경영원) 곽세영(청주대) 곽지영(세명대) 금득규(유한대) 김규미(중원문화재단) 김노태(포스코) 김석수(산업현장교수단) 김완용(숭의여자대학교) 김용기(유창이앤씨) 김우중(중앙대) 김은준(기업은행) 김정향(기술보증기금) 김찬호(우진엔텍) 김철훈(유안타증권) 김형중(기업은행) 남우진(세무방송) 남호일(필립상사) 노뽀은(서울기독대) 동학림(호서대) 류준열(서울시립대) 박미희(용인예술과학대) 박우석(올인닷컴) 박재희(University of North Florida) 박천규(경북전문대) 서미순 서병진(웰빙뉴스) 손종률(디자인오감) 신현주(IBK컨설팅) 심종범(건국대) 심현숙(배화여대) 양지연(수원대) 여철기(굿스타트파트너스) 오랑거(몽골 UFE(금융경제대학)) 이상엽(경상국립대학교) 이성무(동국대) 이윤상(Georgia주 Columbus State University) 이을터(군산대) 이의복(글로벌리더십경제교육센터) 이재열(기업은행) 이진화(대구대) 이창대(목포대) 이현수(엑셀리스코리아) 임진혁(경기대) 장은록(중국 Yancheng Institute of Technology) 장책(치우수출입무역) 전기수(신라호텔) 전대봉(와이티피) 전덕영(서울신용보증재단) 전지연(JY학원) 정도영(한화갤러리아) 정재현(동아대학교) 정준희(대구대) 정혜윤(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조남철(세무법인 넥스트) 조태연(메이커스테크놀로지) 진기방(세스코) 채희주(세무회계사무소) 최다인(조선대학교) 최보람(조선대학교) 최요한(Southern Illinois University) 황윤도(디자인뉴) 허강수(건국대) 황연(건국대)
감사	박근서(성현회계법인) 송덕근(건국대)

》 3. 편집위원회

직책	성명(소속) (가나다 순)
위원장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
위원	김완용(숭의여자대학교) 김지희(미국 Canisius College) 김창완(계명대학교) 김태성(충북대학교) 이상엽(경상국립대학교) 장은록(중국 Yancheng Institute of Technology) 정재현(동아대학교) 최보람(조선대학교)

* 위원구성: 8명(해외 2명, 서울 1명, 대구 1명, 경남 1명, 충북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 4. 운영위원회

직책	성명(소속) (가나다 순)
연구윤리 위원회	위원장 심충진(건국대)
	위원 강승완(가천대) 곽원준(숭실대) 김계수(세명대) 노경호(대림대) 정준희(대구대)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장 서영택(대진실업)
	위원 김병진(성보촌) 유경하(서전엔지니어링) 변우석(코맥스) 허동현(선진이앤에스) 황조익(드림이앤씨)
홍보 위원회	위원장 유병준(서울대)
	위원 김소희(드림오피스) 김철훈(유안타증권) 박은홍(영창실리콘) 박찬명(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현재(국민대)
포상 위원회	위원장 권홍순(대덕대)
	위원 김병구(이노제이에스), 김태한(중원대학교), 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 심준섭(경운대학교),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태관(호서대학교)

II. 2023년도 하반기 학회운영 경과

》 제7회 가족기업포럼 개최

7월 27일(목) 14:00부터 16:00까지 줌(Zoom)으로 제7회 가족기업포럼을 개최하였다. 황조익(드림이앤씨 대표이사) 산학부회장께서 “ESG 혁신 지속가능성을 통해 성공을 재정의하는 가족기업”을 발제하였고 남영호(건국대) 고문의 사회로 정명수(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회원, 송덕근(건국대) 감사, 박원일(DE&C ESG본부장) 회원께서 토론을 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는 ESG를 가족기업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가족기업이 ESG 혁신으로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성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한 성과가 있었다. 더 나아가 ESG 주제는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ESG 경영과 전략” session으로 확장돼 참석자의 긍정적 호응을 받았다.



부산 BEXCO에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글로벌 혁신생태계와 지역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38개 학회가 공동주최한 제25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본 학회 윤병섭 회장께서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융합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내년에 (사)가족기업학회의 역할을 찾아보고 논문발표 기회 등으로 회원의 학술연구 성과 향상과 위상 제고 방법을 모색하였다. 내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6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며, 현재 38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어 (사)가족기업학회의 회원가입 및 논문발표 계획을 구상 중이다.



차기 한국경영학회 회장 인하대 김연성 교수(좌측)와 윤병섭 학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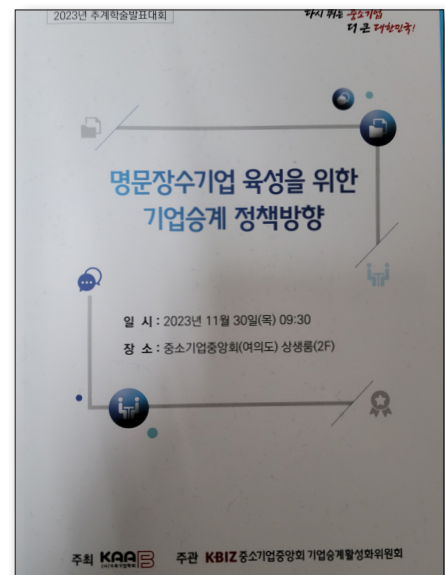
》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지난 11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창의룸, 비전룸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성료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IBK기업은행이 후원하고 한국부동산원, 경남개발공사, (주)서전엔지니어링, (주)선진이앤에스, (주)한건설그룹, (주)이노플렉스가 협찬했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오전 및 오후에 5개 session으로 편성돼 운영됐다. 오후의 4개 session은 ESG 경영과 전략, 기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가족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가족기업 등에서 12편의 논문이 발표돼 6번째 맞은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장 성황을 이뤘다.

(사)가족기업학회 202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09:30~09:32 (2')	【기념촬영】
	09:32~09:35 (3')	【개 회】참석자 소개 등
	09:35~09:40 (5')	【개 회 사】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
	09:40~09:45 (5')	【환 영 사】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세션 I	09:45~10:05 (20')	【발 제①】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10:05~10:25 (20')	【발 제②】기업승계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방안 - 김한수 경기대학교 교수
	10:25~11:25 (60')	【지정토론】 * 좌장 :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 김한수 교수(경기대)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 조웅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박세웅 세무사(세무회계 선우) ○ 김효진 전무(동일전선(주))
	11:25~11:35 (10')	【자유토론】 플로어 질의 등
	11:35~11:40 (5')	【총 평】 정재연 회장, 윤병섭 학회장
	12:00~13:00 (60')	오찬
세션 II	13:00~13:15 (15')	【발 표①】가족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업승계 활용사례 김승훈 대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3:15~13:30 (15')	【발 표②】유가증권시장 가족기업의 ESG성과와 기업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덕영 책임전문위원(서울신용보증재단)
	13:30~13:45 (15')	【발 표③】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과세관청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와 공평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취디 박사과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국후 간치맥 석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13:45~14:00 (15')	【발 표①】.【발 표②】.【발 표③】의 토론 좌장: 양창규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토론: 차재영 대표세무사(한백세무법인) 양창규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상엽 교수(경상대학교)

세 션 Ⅲ	13:00~13:15 (15')	【발 표①】거래 HNWI 상속 및 증여세 개선방안 김철훈 수석세무전문위원(유안타증권)
	13:15~13:30 (15')	【발 표②】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안 김영선 대표 세무사(김영선세무회계컨설팅)
	13:30~13:45 (15')	【발 표③】가업승계 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검토 김완용 교수(송의여자대학교)
	13:45~14:00 (15')	【발 표①】,【발 표②】,【발 표③】의 토론 좌장: 채희주 대표세무사(채희주 세무회계) 토론: 강신우 대표세무사(명성세무법인) 채희주 대표세무사(채희주 세무회계) 이현재 교수(국민대학교)
휴식	14:00~14:10 (10')	휴식
세 션 Ⅳ	14:10~14:25 (15')	【발 표①】실패한 아이러브스쿨 사례분석 이현수 부사장(엑셀리스코리아)
	14:25~14:40 (15')	【발 표②】스타트업 가족기업의 정부R&D 지원과 지식재산권 창출 효과 최다인 교수(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14:40~14:55 (15')	【발 표③】가족기업의 환경보호 기부와 세금납부 의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최영 박사과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몽흐바야르 아즈자야 석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55~15:10 (15')	【발 표①】,【발 표②】,【발 표③】의 토론 좌장: 김기형 교수(한양대학교) 토론: 남호일 사장(쥬케이피아이앤디) 정유림 교수(한성대학교) 조형태 교수(홍익대학교)
세 션 Ⅴ	14:10~14:25 (15')	【발 표①】ESG경영은 특별활동이 아닌 새로운 경영원리이다 박원일 대표(원디브)
	14:25~14:40 (15')	【발 표②】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급망 관리와 전략적 접근 박용기 단장(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ESG경영지원단)
	14:40~14:55 (15')	【발 표③】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 3자 검증과 기업의 대응방안 정순구 부장(㈜LS 네트워크)
	14:55~15:10 (15')	【발 표①】,【발 표②】,【발 표③】의 토론 좌장: 황조익 대표이사(드림이엔씨) 토론: 김정향 부장(기술보증기금) 양창규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황조익 대표이사(드림이엔씨)
휴식	15:10~15:30 (20')	휴식
이 사 회 및 총 회	15:30~15:50 (20')	연구윤리 교육 [교육 내용] 사이버 연구윤리 학습매뉴얼
	15:50~16:30 (40')	이사회 및 총회 보고안건 -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이사회 및 총회 의결안건 - 의안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일부개정의 건



2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종합

중소기업뉴스

직원 복지 위해 쓰는 전세보증금이 '사업무관자산'이라뇨?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대여금·대손충당금설계권
기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
승계준비 중소기업에 큰 부담
경영현실에 맞는 기준 세워야

"현재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해석과 판례가 달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중임원 복지를 위해 사원 아파트나 숙소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무관자산' 분류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방안을 비롯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수 경기대 교수는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 외를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계

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상속공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현금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기준도 모호

먼저 김현수 교수는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여금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는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주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에서 지난달 30일 포럼을 개최해 확장 정책인 위원장을 필두로 지정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와 당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구체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여금은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등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대여금 △관계회사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관계회사 등 대여금과 매입거래처의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거래처 대여금을 꼽았다. 다만 법인이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과다보유현금의 계산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세법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보유현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과다보유현금'으로 분류한다. 평균 보유 현금액은 기말 현재 보유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150%' 초과 기준도 모호하며 미래 불확실성을 위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현금(자산) 조달

김 교수는 "기업이 수평적 계열화 방식을 선택함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수평적 계열화란 국내외 동일하거나 비슷한 생산시설을 해외 현지에서 동으로 원자재 수급의 안정화와 해외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 해외 현지의 인건비,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해외 자회사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관계회사의 주식 보유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동업·공동창업 모두 승계지원 필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의 분류와 명확한 기준 부재로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 무관 금융상품 등의 분류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추문갑 본부장은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 제도 활용유형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 본부장이 제기한 복수

최대주주 이슈는 '동업 및 공동창업'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기업상속 및 증여 세법 상에는 1개 기업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엔 기업승계 지원세제를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각 5:5 지분으로 공동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1명(상속인 A)이 먼저 기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나머지 1명(상속인 B)은 세제지원 없이 천문학적 상속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추 본부장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2.3세 경영자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분할, 주식매각 등을 해야 하는 경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병철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와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은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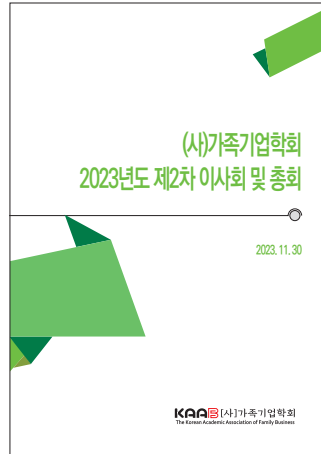
현행 '사업무관 자산'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① 비사업용 토지
- ② 업무용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④ 과다보유현금
- ⑤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Ⅲ.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지난 11월 30일(목) 추계학술대회를 성료한 후 (사)가족기업학회 제2차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중요한 안건을 다뤘다.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일부개정

지난 11월 30일(목) (사)가족기업학회 제2차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을 일부개정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국립중앙도서관)의 권고에 따라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을 일부개정했으며, 이는 본 학회지의 등재(후보) 학회지 평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개정

현행	개정
제32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가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게재신청을 가족기업연구에 할 수 없다.	제32조(논문의 권리와 이익, 저작권의 양도) ① 삭제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사)가족기업학회에 양도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가족기업학회가 발행하는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할 수 없다. ③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첨 1]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사)가족기업학회의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들)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사)가족기업학회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주저자				휴대폰: 직장:	
공동저자1				휴대폰: 직장:	
공동저자2				휴대폰: 직장:	
공동저자3				휴대폰: 직장:	

(사)가족기업학회장 귀하

》 가족기업 학술상 시상

지난 4월 27일(목) (사)가족기업학회 제1차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학술상은 가족기업경영 분야에서 경영이론 및 경영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와 경영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30일(목) (사)가족기업학회 제2차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본 학회의 정관 제4조(사업),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에 의해 7명으로 구성된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에게 가족기업 학술상을 시상하였다. 시상은 최우수 논문상, 최우수 발표논문상, 우수 발표논문상으로 상장을 수여하였다. 최우수 논문상은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1호에 게재된 5편 중 1편을 선정했으며, 최우수 발표논문상, 우수 발표논문상은 금번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12편에서 각각 1편씩 선정하였다.

● 최우수 논문상

강무성(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서영택(대진실업주식회사)

“스타트업 가족기업의 정부R&D 지원과 지식재산권 창출 효과”

● 최우수 발표논문상

최다인(조선대학교)

“가족기업의 급진적 혁신 지향성과 경영성과”

● 우수 발표논문상

김철훈(유안타증권)

“거래 HNWI 상속 및 증여세 개선방안”



최우수 논문상 수상한 서영택 대진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좌측)



최우수 발표논문상 수상한 최다인 조선대학교 교수(좌측)



우수 발표논문상 수상한 김철훈 유안타증권 수석전문위원(좌측)

》 연구윤리 교육

지난 11월 30일(목)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후 (사)가족기업학회 제2차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이전에 최근 매우 강화되는 연구윤리에 적극 부응하고자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윤리 교육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사이버 연구윤리 학습매뉴얼” 이해하기 등이었다.



IV.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록 준비

》》 진행과정

- 2022년 하반기 ISSN 등록(ISSN 2951-4010)
- 2023. 01. 01. 편집위원회 신규 구성
* 위원구성: 8명(해외 2명, 서울 1명, 대구 1명, 경남 1명, 충북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 04. 27.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제정
▶ 우수논문상 ▶ 우수발표논문상 ▶ 가족기업경영대상
- 06. 28. 편집위원회 통장 개설해 사무국 통장과 분리 운영
- 06. 30. DOI 계정 승인(할당된 접두사 10.23204)
▶ 승인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DOI센터
▶ DOI의 정의 :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하는 알파벳+숫자 기호 체계인 디지털 객체 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 06. 30.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1호 5편 게재(DOI 계정 적용)
* 투고, 심사, 게재여부 결정, 가편집, 인쇄본 검독 등 일련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 11. 16. 학술지 저작권 등록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에 등록
- 11. 30.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일부개정(저작권정책 등록)
- 12. 31.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2호 5편 게재 예정



V. 2023년도 사업보고

》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가족기업학회는 학회 홈페이지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였다.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계정 승인(할당된 접두사 10.23204)에 따라 본 학회가 편찬하는 학술지를 외부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다.

》 연구 논문 지원 사업 공개 모집

- 10. 19. 연구 논문 지원 사업 공개 모집
 - ▶ 공모주제 : 가족기업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업승계, 장수기업 등)
 - ▶ 공모대상 : 가족기업학회 전 회원(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가능)
대학원생, 연구원, 컨설턴트, 교수 등 모두 포함
 - ▶ 공모기간 : 2023. 12. 8(금) 까지
 - ▶ 공모과제수 : 총 6편
 - ▶ 지원금액 : 과제당 백만원(총 6백만원)

》 제2권 제2호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할 논문 5편 확정

오는 12월 31일(금)에 발간할 제2권 제2호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할 투고논문을 접수했다.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5편을 제2권 제2호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연구논문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힘입은 바 크다. 본 학회지가 연 2회(6월, 12월) 발행된다. 2024년 상반기에도 공개모집을 통해 연구 진작과 본 학회지의 등재(후보) 학회지 평가에 도움이 되게 질적 제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확정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 취디(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토국후 간치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과세관청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와 공평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 ▶ 최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몽흐바야르 아즈자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

“가족기업의 환경보호 기부와 세금납부 의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 ▶ 전덕영(서울신용보증재단 책임전문위원), “유가증권시장 가족기업의 ESG성과와 기업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 강무성(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서영택(대진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여유자원 있는 가족기업의 가족구성원 참여가 미치는 기술혁신지향성”.
- ▶ 하석광(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허호영(오스텍(OSTEC) 대표이사), “비인격적 감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사갈등, 조직침묵, 일탈행동의 매개효과”.

»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지난 11월 30일(목) (사)가족기업학회 제2차 이사회 및 총회에서 11월 14일 기준으로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하였다. 2024년 2월 중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한 중소벤처기업부에 2023년도 본 학회 수지결산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중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3년 수지결산서(2023.01.01.~2023.11.14.)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인원	계	항 목	금 액	비고
1. 전기이월			13,394,189	1. 행사비용	23,909,040	
				1)춘계학술대회	14,622,540	
				(1) 자료집	3,681,100	
				(2) 발표수당	4,507,800	
				(3) 현수막, 홍보, 기념품 외	4,277,340	
				(4) 점심, 음료 외	2,156,300	
				2)포럼(7회)	421,500	
				3)학술지발간	8,865,000	
2. 회비 수입			38,353,000	2. 사무국관리비용	6,368,805	
1)입회비			1,350,000	1)사무용품 등 운영비	958,200	
2)연회비			1,303,000	2)주민세 외	98,000	
3)평생회비			2,700,000	3)법무 및 증빙비용	405,140	

4)기관회비		33,000,000	4)홈페이지 관리	3,057,165	
			6)출장비	258,300	
			7)세무보고기장	990,000	
			8)회원경조사	602,000	
3.개인 기부금		1,000,000	3. 이월	29,227,301	
1)김정*		1,000,000	1)일반 통장	29,227,301	
4. 임원분담금		6,750,000			
5. 기타		7,957			
1)이자수입 등		7,957			
합계		59,505,146	합계	59,505,146	

□ 금융자산

학회일반 예금통장(신한은행) : 29,227,301원(편집위원회 포함)

감사보고서

(사)가족기업학회의 2023년(2023.1.1.~2023.11.14.)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업무 감사 결과

(사)가족기업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과정이 회칙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 회계 감사 결과

(사)가족기업학회는 예산 집행 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결산서의 수입,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일

감사 박근서

감사 송덕근 (인)

(사)가족기업학회 귀중

감사보고서

(사)가족기업학회의 2023년(2023.1.1.~2022.11.14.)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업무 감사 결과

(사)가족기업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과정이 회칙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 회계 감사 결과

(사)가족기업학회는 예산 집행 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결산서의 수입,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일

감사 박근서 (인)

감사 송덕근 (인)

(사)가족기업학회 귀중

VI. 회비 및 임원 분담금 현황

》 회비 집계표(2023.1.1.~2023.11.14.)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사, 62명이 46,103,000원을 본 학회에 회비로 기부하였다.

회비 집계표(2023.1.1.~2023.11.14.)

(단위: 원)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기관회비	계
상반기	1,110,000	1,133,000	1,800,000	5,800,000	15,000,000	24,843,000
하반기	240,000	170,000	900,000	1,950,000	18,000,000	21,260,000
계	1,350,000	1,303,000	2,700,000	7,750,000	33,000,000	46,103,000

참여인원 집계표(2023.1.1.~2023.11.14.)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기관회비	참여인원
계	45명	42명	9명	46명	6개사	62명, 6개사

》 평생회비 납부회원(2021~2023)

- 2021년 10명, 2022년 8명, 2023년 9명 누계 27명

평생회비 납부회원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납부연도	회원명(납부순)
2021년 (10명)	고경일(협성대) 김도현(건국대) 김지희(Canisius College) 김진욱(건국대) 남영호(건국대) 노희구(세무법인다솔) 박근서(성현회계법인) 송덕근(건국대)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 이종덕(서울바이오시스㈜)
2022년 (8명)	김관용(한국표준협회) 김기형(한양대) 김병진(성보초) 문용갑(갈등관리조정연구원) 조남철(넥스트 세무법인) 조병선((사)한국가족기업연구원) 하태관(호서대) 황조익(드림이앤씨)
2023년 (9명)	강신우(명성세무컨설팅) 김철훈(유안타증권) 백준성(세무법인온지) 이현수(엑셀리스코리아) 정용태(계명문화대) 채희주(세무회계사무소) 이지연(퀸스스피치) 백주민(큰믿음손해사정) 박원일(원디브)

VII.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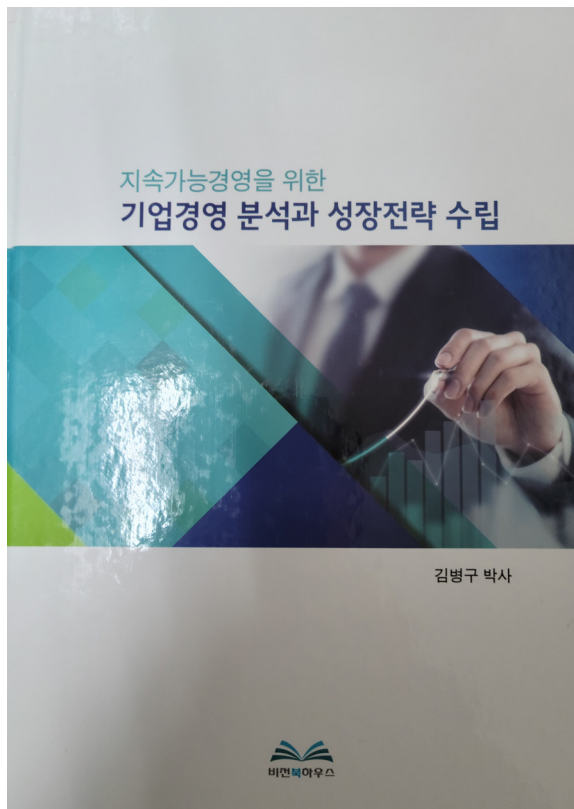
》 1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박우석(올인닷컴) 이사께서 2023년 12월 5일(화) 개최된 「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TV 등을 수출한 공로로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인들에게 수여하는 ‘수출의 탑’은 대한민국 수출의 역군임을 증명하는 징표다. (주)올인닷컴은 2016년 법인으로 전환됐으며, 사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소매, 전자상거래/TV,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와 스마트기기의 제조 및 개발 등이다. 중국 KTC와 TV OEM 계약체결, 롯데 원티비 홈쇼핑 INNOS TV 런칭, 공영홈쇼핑 INNOS TV 런칭, 케이쇼핑 홈쇼핑 INNOS TV 런칭 등 TV브랜드 INNOS TV는 명성있다.



》 김병구(이노제이에스) 산학부회장께서 ESG 교재 발간

김병구(이노제이에스) 산학부회장께서 2020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경영 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저술해 비전북하우스가 발간한 데 이어 금년 12월에는 “ESG 경영, A에서 Z까지”를 공동저술해 발간한 원더북스가 서점에 진열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ESG 교재는 저자들이 제조현장에서 체험한 실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어 ESG 경영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VIII. 회원가입 및 입금계좌 안내

》》 회원가입

• 정관에 의함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가족기업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연구, 강의하는 자
2. 공인 연구소에서 가족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가족)기업체의 중견간부 이상인 자
4.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가족기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제 7 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가족기업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가족기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8 조 (특별 회원 및 기관회원의 자격)

1.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 2) 가족기업 및 이와 관련된 기관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 회비 안내

회비구분		입회비(원)	회비(원)	
			연회비	평생회비
정회원(준회원)		30,000	30,000	-
평생회원		30,000	-	300,000
임원 기여금	회장	500,000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5-176912 (사)가족기업학회	
	부회장	300,000		
	산학부회장	300,000		
	상임이사	100,000		
	이사	50,000		
기관 회원	도서관 연구소	50,000	100,000	1,000,000
	기관회원 C	연회비 1,000,000		입회비 없음
	기관회원 B	연회비 5,000,000		
	기관회원 A	연회비 10,000,000		
	기관회원 S	연회비 20,000,000		
명예회원		100,000	100,000	1,000,000
비고		신규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기존정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 기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5-176912 (사)가족기업학회

>> 입금계좌 안내

(사)가족기업학회의 회비납부는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각각 입회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료 등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5-176912 (사)가족기업학회

- 무통장 송금시 송금자의 성명과 내용이 통장에 기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홍길동 입회비, 홍길동 연회비, 홍길동 심사료, 홍길동 게재료 등)